

60대 은퇴 남성의 역경대처 경험: 경제적 어려움을 중심으로*

양 의 주

전주대학교 / 강사

하 정†

전주대학교 / 교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은퇴남성들의 역경대처 경험의 구조와 과정을 설명하는 실제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60대 은퇴남성 9명을 목적으로 표집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에서 116개의 개념, 51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23개의 범주가 발견되었다.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중심현상을 중심으로 페러다임 모형이 도출되었으며 핵심범주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아감’으로 밝혀졌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경대처 경험의 과정은 ‘가로막힘 단계’, ‘웅크림 단계’, ‘외부자원 의존 단계’, ‘내적변화 모색’, ‘현실 받아들이기’, ‘제한된 자족 단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은퇴남성의 경제적 역경 대처 경험과 과정에 관하여 논의하고 상담개입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은퇴남성들이 경제적 역경을 대처하는 경험의 구조와 과정을 심층적으로 밝힘으로써 은퇴자들의 심리·사회적 이해의 기초를 세우고, 개인 및 가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은퇴 후 직면하게 될 실제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은퇴, 역경 대처, 경제적 어려움, 질적연구, 근거이론

* 본 연구는 양의주(2018)의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0대 은퇴남성의 역경대처 경험: 경제적 어려움을 중심으로’를 요약,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하 정,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우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 063-220-2921, E-mail : hajung68@jj.ac.kr

최근 한국사회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대수명의 증가와 건강관리로 인한 젊은 노년이 현실화 되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남성의 기대수명은 79.70세이고, 장년층의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이다(통계청 A, 2019). 기대수명은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어서 주요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 30여년이 넘는 시간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퇴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일 중의 하나이며, 그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은퇴에 대한 기대나 은퇴 준비 정도 혹은 은퇴 방식은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여(Horn & Meier, 1987) 은퇴 이후의 삶이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다.

은퇴는 일에서 물러나 그 직위와 역할 수행을 중단하게 되거나(최신덕, 김종숙, 1983),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Atchley, 1988) 은퇴라는 사건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역할 변화를 가져오며 직업역할 상실 및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기적 사건이다. 은퇴의 저연령화, 감원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은퇴는 내 집 마련, 자녀양육, 부모부양 등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으로 인해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해야 할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김은영, 2014). 은퇴 후 개인의 적응을 해치는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은 감원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강제은퇴이다. 실제로 조기퇴직 및 정년퇴직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준비 없이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여건에 의한 구직활동이 실패로 이어져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빈곤 노인 인구로 전락하고 있다

(김지경, 송현주, 2010). 은퇴 후 노인 빈곤율을 살펴보면 2013년 49.6%에서 2015년 51.5%로 증가하였고(통계청, 2015), 2017년 65세 이상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56.6%를 기록했다(통계청, 2018). 연금수령은 45.9%이고 이 가운데 66.3%는 연금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이다(통계청 B, 2019). 2017년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은퇴 후 필요한 월 최저 생활비는 113만원이다. 이러한 사회적 담론화는 거대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은퇴하고 있고, 100세 시대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 의식을 높이는 계기이기도 하다.

한국남성은 직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목적을 이룸으로써 사회적 자아정체감을 공고히 하고, 가계 경제의 주된 부양자로서 자녀교육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3). 반면에 여성의 경제활동은 진입하고, 떠나고, 재진입하는 불연속적인 고용패턴(Simmons & Betschild, 2001), 즉 가계 경제의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특성으로 인해 여성 은퇴자에 비해 남성 은퇴자의 경제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지각된다(홍성희, 박인숙, 2006). 특히 60대는 은퇴를 했어도 자녀의 교육과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시기여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은퇴연령에 해당된다(신복기, 이성진, 2017). 사회와 연결된 일자리를 잃고 소득의 원천과 삶의 근거기반을 상실하게 되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져(김경희, 정혜정, 2017) 은퇴 이후의 삶이 소외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보다 더 큰 불안(김향은, 정옥분, 1992)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어제보다 나은 적

응을 다루어 나가는 대처양식은 비용, 선호, 제한 등의 경제적 선택들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게 될 수 있다.

은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소득 단절로 인한 사회적 역할 축소로 이어질 경우에는 정신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Reitzes and Mutran, 2004). 자신감 상실 및 무가치함 등의 부정적 정서로 말미암아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삶의 기반을 뒤흔들며 높은 스트레스 사건으로 경험(Tedeschi & Calhoun, 2004) 될 때, 우울과 자살을 시도하는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최신애, 하규수, 2012) 은퇴 후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경제적 역경에 관한 여러 요소들을 대처하는 주관적 과정을 탐색하는 학문적 탐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은퇴라는 전환기적 사건은 사회적 역할에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다. 은퇴 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부관계의 불만족과 갈등이 증가하고(Chalmers & Milan, 2005), 이러한 부부관계의 갈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은퇴 남성의 생활적응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선영, 윤희영, 2012).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은퇴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홍성원, 정민희, 유서구, 2016) 은퇴 후 삶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외에 개인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회적 참여도가 달라지고(주재영, 2010), 친척이나 친구, 사회활동 참여 등과 같은 강한 사회적 연결망은 은퇴자들의 삶의 질로 작용(Mclaughlin, Vagenas, Pachana, Begum, & Dobson, 2010)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은퇴 남성이 사회적 관계망을 자기발전의 동력으로 만들던 체제에서 벗어난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질 때 그들의 경험에 관한 실제적인 현상과 이해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세계로 들어가 은퇴 후 경제적 역경 상황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실체를 추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문제는 특히 은퇴자의 삶의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은퇴는 무엇보다도 경제력이 손상을 입히게 되므로 은퇴 이후의 질적인 삶의 보장을 위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이만규, 김완석, 1999). 은퇴는 은퇴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조달이 어렵게 되어 노후의 재정적 안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대처가 요구되지만(최혜지, 이영분, 2005), 65세 이상 집단의 50%만이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고되고 있어(통계청, 2014) 한국 60대 은퇴 남성의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재정적 대처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도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의 절반정도가 은퇴준비를 해야 하는 것(한경혜 et al, 2011)으로 나타나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름을 알 수 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은퇴 후 경제적 여건과 노후의 삶의 질(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8; 방희명, 2009), 61세 이후의 직업여부, 국민연금과 노인빈곤(김진욱, 2011; 신복기, 이성진, 2017),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경험(석상훈, 김현수, 2012), 은퇴 후 노동시장 재취업(김은영, 2014), 은퇴 후 주관적 경제적 빈곤 발생기간의 영향요인(신복기, 이성진, 2016), 일과 가족부양(남순현, 2017), 노인의 빈곤영향 요인(Price, 2006; Neda, D., Johan, D. D., & Caroline, D. 2015), 경제문제와

정서(Chris et al., 2007), 노인빈곤이해(Sarmischa & Robert, 2010), 가계의 금융사건과 대처전략 (Varcoe, 1990) 등의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박혜성(2007)은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해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의 배경변인과 경제적 대처행동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수준을 연구하였다. Voydanoff & Donnelly(1989)은 경제적 고통, 가족 대처 자원 및 행동, 정신 건강의 관계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다른 변인과 관련지어 탐구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은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60대 은퇴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은퇴 후 경제적 역경을 대처하는 이들의 경험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은퇴 후 위기를 포괄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은퇴자들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60대 은퇴남성의 생활세계로 들어가 경제적 역경대처경험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이들의 역경대처 경험과정의 본질적 특성을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탐색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은퇴 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공감과 유용한 적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불어 상담현장에서 은퇴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조력하고 은퇴자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60대 은퇴남성이 경험하는 경제적 역경대처 경험의 구조와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탐색적 연구를 하기 위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선택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반응 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고(Schreiber & Stern, 2001), 연구 참여자들의 시각으로부터 ‘살아 있는 경험’에 관해 개념들을 도출하여 실제 임상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ssinger, 2005) 본 연구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방 법

근거이론

본 연구에서 선택한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현실 맥락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주관적인 경험을 상호작용적이고 의미 있는 이론으로 제시하는 연구방법이다. 근거이론의 특성은 과정과 궤도에 초점을 두고 분명한 단계와 국면을 가지며, 행동과 변화를 나타내는 동명사를 사용하고, 핵심변수나 범주, 기본적인 사회화과정 혹은 기본적인 심리·사회적 과정을 포함하며, 추상적인 개념과 관계적인 진술을 통해 서술적 자료의 통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Schreiber & Stern, 2001).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은퇴 후 경제적 역경과 그 상황을 대처하는 주관적인 경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참여자 선정 및 특징

근거이론에서 연구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목적으로 표집 하는 것

으로 이루어진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참여자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60대(60-69세)의 은퇴 남성으로 설정하였다. 60대를 선정한 이유는 자녀부양과 가계소득을 주로 담당해 왔던 60대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신복기 외, 2017)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은 은퇴 후 은퇴자금 또는 재원을 상실하여 주관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로 한정하였다. 셋째, 전업(full-time)으로 활동하던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후, 현재 전일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1일 5시간 이하로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 2명, 지방 대도시 7명으로 참여자들의 평균나이는 최소 60에서 최대 69세(평균 64)이고, 주요직업에 종사한 기간은 15년-42년(평균근속 27년)이었다. 이들은 건설, 금융, 공무원, 공기업, 사업, 교육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고, 은퇴 경과 기간은 최소 3-12년(5년 이내 3명, 10년 이내 3명, 15년 이내 3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무직 4명, 시간제 근로 5명이었으며, 연금수혜자는 4명(국민연금 2명, 공무원연금 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현재 월평균소득은 연금포함 100만 원정도이며, 부인들의 월 평균소득은 85만원 정도였다.

<참여자 1>은 현재 67세이며 건설업에 30년 동안 종사한 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사용함으로써 퇴직금 없이 은퇴하였다. 퇴직 후에는 집에서 소일하며 아내가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참여자 2>는 현재 60세이며, 금융업에 28년 동안 종사한 후 56세에 퇴직하

였다. 퇴직금을 사업에 투자하여 실패한 후 가정해체의 위기를 경험하였으며, 현재는 가족원 각자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참여자 3>은 현재 62세이며 공기업에 26년 동안 종사한 후 55세에 퇴직하였다. 은퇴자금을 투자사기로 잃고 아내와 소통이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는 비정기적으로 주어지는 일을 하며 용돈을 해결하고 있다. <참여자 4>는 현재 63세이며 금융업에 18년 동안 종사한 후 45세에 퇴직하였다. 재취업 하여 5년 동안 일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둔 후 가정이 해체되었으며, 현재는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참여자 5>는 현재 68세이며 37년 동안 교육에 종사한 후 62세에 퇴직하였다. 은퇴 후 연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하여 손해 본 후 빚에 놓였다. <참여자 6>은 현재 62세이며 대기업에서 24년 동안 근무한 후 46세에 퇴직하였다. 은퇴자금과 빚을 내어 사업에 투자한 후 실패하였으며, 현재는 비정기적으로 주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 <참여자 7>은 현재 69세이며, 17년 동안 경영해온 사업이 부도난 후 58세에 현업에서 물러나 은퇴자로 생활하였다. 현재는 아내와 함께 시간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참여자 8>은 현재 63세이며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한 후 60세에 퇴직하였다. 은퇴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패하였고 연금으로 집 월세와 빚을 갚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자 9>는 현재 61세이며 금융업계에서 15년 근무 후 44세에 퇴직하였다. 보험회사에서 5년 동안 더 일한 후 은퇴하였다. 은퇴 후 자금 투자 사업에 실패하여 빚에 놓였고, 그 후 시간제 일을 하고 있다.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한 학기 동안 수강하고, 또한 질적 연구에 관한 특강과 워크샵에 여러 차례 참여하며 질적 연구의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과 현상학적 연구, CQR 연구 방법을 관심 갖고 공부하여 박사과정생과 공동연구로 다수의 질적 연구를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학술지에 발표한 질적 논문은 은퇴에 관한 논문이 2편, 그 외 1편이고, 연구방법은 현상학논문 1편, CQR 논문 1편, 근거이론논문 1편이다.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고 1차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질문이 생성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차면담을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체화하였다.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신청서 그리고 면접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면접참여 동의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 보장 및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철회의 자유와 권한이 있으며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녹음테이프를 폐기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는 곳이나 상담실로 정하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면담시간은 1시간-1시간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녹취한 내용은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필사하여 자료화 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 질문은 반구조화 된 질문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끝어가되, 면담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비구조화 된 개방형질문으로 넓혀 질문하여 점차 좁혀 질문해가는 깔때기 접근(funnel like approach)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 결과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의 4가지 평가기준을 따랐다(Lincoln & Guba, 1985). 신뢰성은 양적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2차면담에서 분석결과를 보여주거나 면담이 불가피할 경우 이메일로 개방코딩, 축코딩, 과정분석, 도출된 유형 자료와 확인질문지를 보내어 경험 기술과 개념 및 범주명이 현상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과정분석은 대부분 동의를 하였고, 개방코딩 자료에 빨간 글씨로 직접 코멘트한 부분과, 연구 참여자 확인질문지를 면담자료와 비교하여 수정보완 하였다. 전이가능성은 다른 전용성에 의해 평가되는 기준이며 양적연구의 외적타당도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 비참여자 1인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적용 가능한 결과인지를 여러 차례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분석결과를 전반적으로 공감하였고 자신에게도 적용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존성은 연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신뢰도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가능성(audibility)을 제안한 Guba와 Lincoln(1985)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였다. 현재

질적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동료 2인과 근거이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 1인을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연구방법과 분석과정,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해 감수를 받았다. 끝으로 연구의 확실성은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나타나는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및 다른 연구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확보되는 객관적인 평가방법이다. 감수자 이외에 박사수료 연구자들과 연구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연구의 목적과 의도,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누며 논의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편견적 시각을 경계하고자 분석과정 중 생각이나 관점 등을 메모하여 다시 원 자료로 돌아가 연구 참여자의 관점으로 현상의 속성을 살펴 판단 중지와 괄호 치기를 함으로써 연구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결 과

60대 은퇴남성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역경대처과정의 개방코딩 결과, 개념 116개, 하위범주 51개, 범주 23개가 도출되었다(표 1). 본 연구의 실체이론은 수집된 질적 자료로부터 연구문제와 대응하는 단어, 구문, 문장, 문단 등의 의미요소를 분석한 후, 개념을 체계적, 논리적, 설명적 도식으로 연결하여 구조분석, 과정분석, 핵심범주로 나타내었다.

은퇴 후 역경대처 패러다임 구조분석

인과적 조건

본 연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준비하

지 못하고 은퇴 함’과 ‘단번에 경제적 회복을 이루고자 함’이었다.

맥락적 조건

본 연구에서는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인 조건으로서 ‘가장의 역할이 무력해져 존재감이 무너짐’, ‘일할 수 없는 현실이 막막함’, ‘아내와 갈등의 골이 생김’이라는 범주가 나타났다.

중심현상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역경대처 경험의 중심현상은 ‘헤어 나오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의미는 어려운 현실을 빠져 나오려고 시도해도 빠져 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중재적 조건

본 연구에서는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으로서 ‘아내와의 관계양상이 변화됨’, ‘후회하고 체념함’,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나서기’, ‘내적·외적제약으로 일 시작이 두려움’, ‘사람의 정을 새롭게 인식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본 연구에서는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서 ‘대인관계를 회피하기’,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을 걱정하기’, ‘아내에게 의존해서 생활하기’, ‘자신을 살리고자 도움을 부여받기’, ‘가치 조율하기’, ‘기본적인 생활부터 재건해 나가기’, ‘변화된 처지를 직시하고 현실에 맞춰서 생활하기’, ‘생계유지하며 살아갈 방책을 모색하기’,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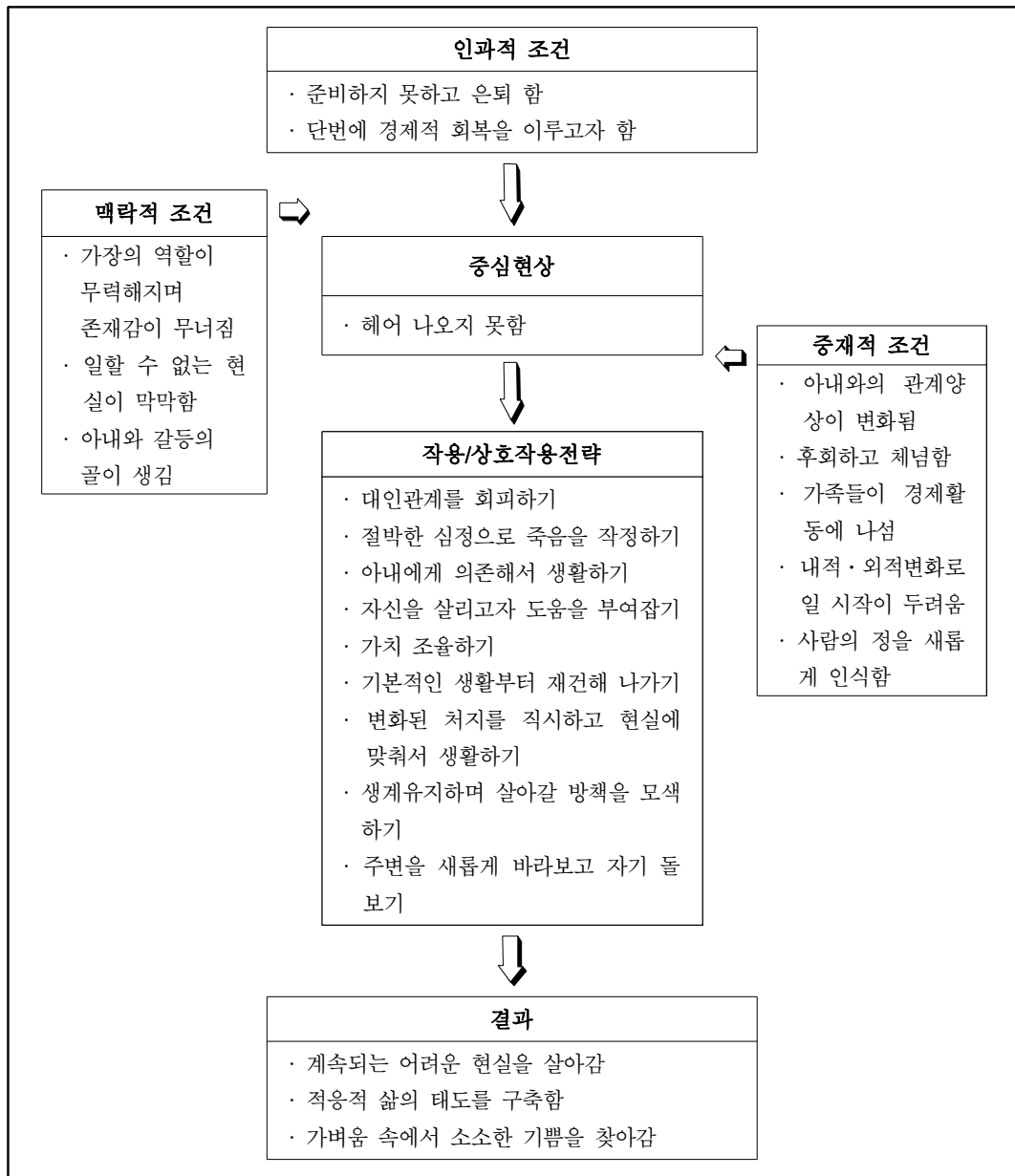


그림 1. '은퇴 후 경제적 역경대처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자기 돌보기' 전략이 도출되었다.

결과

본 연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현

상에 대해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취하여 나타난 결과는 '계속되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감' 그리고 '적응적 삶의 태도를 구축함', '가벼움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감'이었다.

표 1. 60대 은퇴남성의 역경대처경험에 관한 개념 및 범주화

(계속 1)

개념	하위범주	범주	
과거에 아내 씌움을 통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함 세상 욕구 좇아 살던 과거를 주하게 지각함	현재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음	후회하고 체념함	
금전에 예속되지 말자는 신념이 후회됨 어쩔 수 없는 인생사로 체념함 어려움에 점차 내성이 생김	어쩔 수 없어 체념함		
일하지 않았던 아내가 돈을 벌기위해 나섬 아내가 일정부분 경제활동을 감당해줌	아내가 경제활동에 나섬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나서기	
자녀들이 아르바이트하며 학비와 용돈을 해결함 자녀들이 벌어서 결혼 비용을 마련함	자녀들이 자신의 앞가림을 함		
무시 받게 될까봐 구차하게 도움 청하지 않음 퇴직 전 일터에서 인심을 잃어 일자리를 청하지 못함	거절이 두려워 일자리를 부탁하지 못함	내적 외적 제약으로 일 시작이 두려움	중재 조건
일 제안이 와도 몸이 따라줄 것 같지 않아서 거절하게 됨 힘써야 하는 일은 선뜻 나서지 못함	잘해낼 것 같지 않아 선뜻 일에 나서지 못함		
공부를 많이 안했으면 경비라도 했을 것임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 선택은 여전히 주저함	사회적 체면이 무의식적으로 간섭됨	사람의 정을 새롭게 인식함	
퇴직 전 도움 준 이들에게서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받음 가족의 정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	가까운 이들에게서 직접적 도움을 받음		
주변의 진심어린 충고와 정보를 고마운 마음으로 수용함 힘들 때 관심 갖고 전화해준 사람이 고마움	사람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짐	대인관계를 회피하기	
몸이 아프다는 거짓말로 돈 드는 모임을 피함 돈 들까봐 술 한 잔 하던 친구도 멀리하며 외톨이로 지냄	돈이 드는 모임에는 나가지 않음		
생활형편에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친구는 피하게 됨 사람 말을 잘 믿지 않고 경계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않음	사람을 기피하며 경계함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을 작정하기	작용 / 상호 작용 전략
아파도 돈이 들까봐 병원에 가지 않음 아프면 치료받지 않고 '그냥 죽으면 되지'라고 생각함	질병치료를 임두내지 못함		
죽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 속에 간헐 자살하는 이들의 심정이 절실하게 와 닿음	방법이 없어 절박한 심정이 됨	아내에게 의존해서 생활하기	
자살을 생각함 술 마시고 자신도 모르게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함	죽음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을 끝내고자 함		
일하고 돌아온 아내의 발을 주무르며 마음을 살핌 죽고자 하는 것을 아내가 붙들어 살림	아내의 살고자 하는 의지에 나를 맡김	아내의 결정과 판단에 예속됨	
아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내 꿈을 깨뜨림 실패한 사업을 빌미로 돈 들어가는 일은 아내가 무조건 반대함 돈 안 드는 여가활동도 아내가 못마땅해 하면 눈치 보게 됨	아내의 판단에 예속됨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함 자신을 다독여 목숨만은 부여잡음	자신을 죽일 수는 없음	자신을 살리고자 도움을 부여잡기	
노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 공급을 받음 형제, 친인척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줌 자녀들이 부채를 갚아줌	가족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음		

표 1. 60대 은퇴남성의 역경대처경험에 관한 개념 및 범주화

(계속 2)

개 념	하위범주	범 주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파산신청을 하지 않음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 애경사비를 줄여서라도 냄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자함	가치 조율하기	
어렵지 않던 시절의 욕구를 내려놓음 모든 것을 제공받던 권력의 속성을 버림	명예와 부를 좇는 가치를 내려놓음		
집안일을 도우며 아내의 건강을 챙김 아내를 돕고자 밥,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함	생활에 필요한 일부터 시작함	기본적인 생활부터 제천해 나가기	
자녀가 가출하며 방향해도 심정을 공감하며 혼내지 않음 자녀와 모든 상황을 의논하고 공유함 자녀들에게 경제적 곤란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함	자녀들과 정서적 교류를 시작함		
최소한의 경비로 그 안에서 생활함 먹고사는 문제에만 마음 쏟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감당함	변화된 처지를 직시하고 현실에 맞춰서 생활하기	작용 /상호 작용 전략
돈이 들어가는 여가활동, 술, 담배를 하지 않음/끊음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구매력을 억제함	돈 들어가는 기본 욕구를 줄임		
자녀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 수입이 적어도 일함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함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함		
1인 기업을 하고자 SNS를 공부함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자 자격증 시험에 도전함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시도함	생계유지하며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기	
집을 팔아 월세로 옮김 살 통로를 찾고자 이민을 계획함 최후 수단으로 (아파트 팔아)시골에 가서 살 생각임	삶의 터전을 바꾸어 돌과구를 모색함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함 가진 것이 없어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쏟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알아차림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기 돌보기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자기 암시를 함 뭔가를 해보고자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신을 격려함	긍정적으로 자신을 대함		
고통스러운 마음을 털어낸 듯 바보같이 살아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대로 살아감	무력하게 살아감	계속되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감	
스트레스로 아내가 암에 걸림 근심걱정으로 건강이 나빠짐	새로운 어려움에 내몰림		
사회가 인정하는 기준틀로 부터 자유로워짐 어찌할 수 없어 바라는 것들의 높이를 낮춤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비교하는 마음을 털어냄	어찌할 수 없어 낮은 자세로 내려놓음	적응적 삶의 태도를 구축함	결과
현재의 경험들로 동기부여를 함 신을 의지하며 삶의 힘을 얻음 하고 싶은 일,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움직임	살아갈 움직임을 만들어냄		
자녀들의 결혼(독립)으로 내 생활만 책임지면 되어 홀가분해짐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풍족할 때 느끼지 못했던 사는 재미가 생김 과거의 오만함을 떨치고 포장된 행복에서 벗어남	가벼워진 삶에서 새로운 재미가 생김	가벼움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감	
SNS로 가족과 소통하며 친밀감을 만들어 가는 일상을 행복하게 여김 책을 보며 한적하게 지내는 현실도 행복이라고 여겨짐 일을 찾는 움직임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때 즐거워짐	소소한 움직임으로 기쁨을 키워감		

과정분석

과정분석은 구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연속적인 연결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은퇴 후 경제적 역경을 경험하며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현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경대처 과정은 ‘가로막힘 단계’, ‘웅크림 단계’, ‘외부자원 의존 단계’, ‘내적변화 모색 단계’, ‘현실 받아들이기 단계’, ‘제한된 자족 단계’의 6단계로 나타났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림 2와 같다.

1단계: 가로막힘 단계

가로막힘 단계는 은퇴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가오면서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며 은

퇴자금을 무리하게 투자하여 이내 경험부족으로 실패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족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게 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두렵게 받아들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은퇴준비가 부족하였음을 뒤늦게 자책하였다. 수입이 없는 경우 생활유지가 위협되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졌고, 아내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서 이후의 대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사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퇴직금을 주려면 힘들니까 몇 번 중간정산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퇴직금이 몇 푼 되지 않았어요. (중략) 충분히 돈을 모으고 준비할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지금은 자책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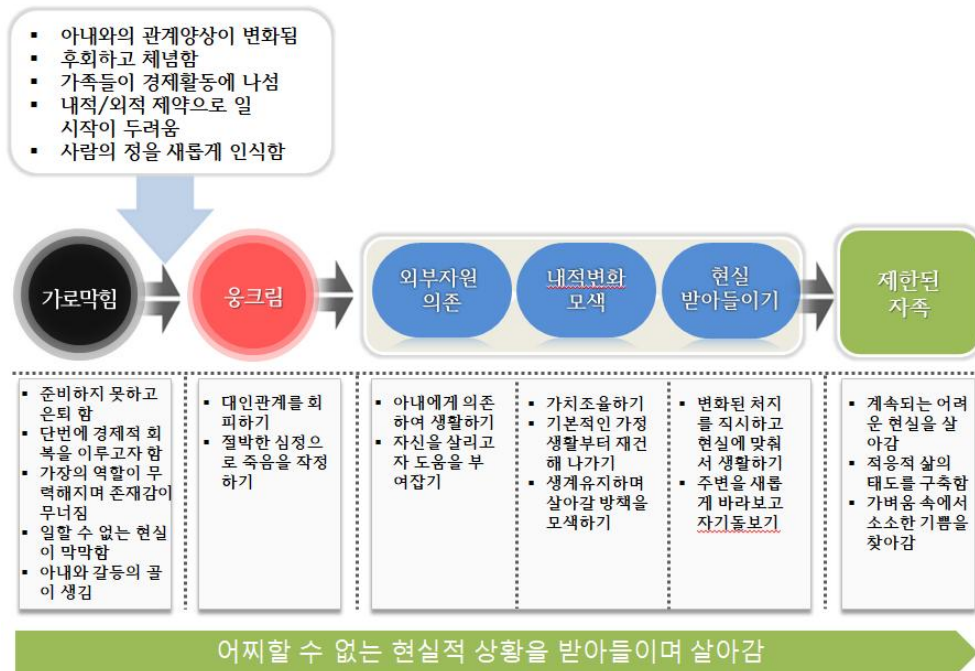


그림 2.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역경 대처 과정

움이 없으면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음악도 하고 좋을 텐데, 너무나 노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도망치듯 화제를 피하게 돼요(참여자 1).

직장 다닐 때 주식해서 큰 돈 날리고 빚을 졌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채로 은퇴를 했죠(참여자 8).

좋은 사업체가 나왔는데 너무 급한 판단으로 사업체를 인수했어요. 조언도 듣고 심사숙고 했어야 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만 보았고, 또 애들에게 물려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그때는 아내와 사소한 말을 하다가도 금방 잡아 죽일 듯이 화를 냈어요. 돌아서고 나면 후회를 했죠(참여자 6).

제가 연금을 받고는 있는데 자녀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할 때 목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잘 안되었죠. 손실이 나면 손실에 대한 복구육구 때문에 빨리 털지 못하고 재투자하여 결국 그게 다 빛이 되었어요(참여자 5).

2단계: 움크림 단계

역경대처의 두 번째 단계는 참여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회피하고 절망하는 움크림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돈이 드는 모임을 먼저 정리하고, 큰돈이 들어가는 부부 동반 여행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어 사회적 페르소나를 유지한다. 돈이 없어서 질병이 생겨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는 죽음을 생각하며 삶의 존재감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회피적 대처는 절망과 무가치함, 존재감의 손상을 가져와 삶을 자기 안으로만 소통시킨다. 살고자하는 욕구와 역경을 대처하고자 하는 열망이 클수록 다음단계로의 진입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모임에 나가면 해외여행 가자는 화제 밖에 없어요. 돈 없어 못 간다 할 수도 없고, 아내가 일을 해서 못 간다고 핑계 댈 수도 없고, 결국 내가 아파서 못 간다고 내 몸을 핑계 댔어요. 그것이 아주 속상해요(눈물을 글썽임).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혼자예요. 외톨이죠. 건강도 포기했어요. 결국은 포기 비슷한 것이죠. 포기를 안 하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아파도 뭐가 있어야 병원도 가지... (중략) 그냥 죽지 뭐, 암이 생겨도 어디 아파도 병원 가려면 돈이 없는데 아프면 그냥 죽으면 되지 그러죠(참여자 1).

사업 망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각오를 했어요. 팔자라고 여겼죠. 그런데 저녁에 술을 먹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란다로 나가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참여자 7).

3단계: 외적 자원 의존 단계

외적 자원 의존 단계는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의 도움을 수용하는 단계이다. 마음 한편으로는 일하지 않던 아내가 일을 시작하고 자녀들은 용돈과 학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인척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하지만 어려운 현실을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기댐이라고 받아들이며 인내한다. 아내

에게 가정경제를 의존하게 되면서 가정 내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이양되는 현상은 경제력을 주도하던 가장의 존재감 상실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가족 개개인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기회가 되고, 함께 어려움을 대처하며 가족의 정을 새롭게 나누는 것에 기여하기도 한다. 또한 주변의 도움은 자신이 잘 살아왔음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여 이후의 삶에 긍정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존 단계는 죽고 싶은 상황에서 탈피하게 되는 계기 마련에 의미가 있다. 부부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내적 변화모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단계에 오랫동안 머물기도 한다.

죽을 때 까지 약점 잡힌 거죠. 두 건이나 투자 실패해서 평생약점 잡혀가지고 기를 못 피는 거죠. 제가 잘못된 거니까 할 수 없어요. 내 나름대로 변명을 하지만, 아내는 말 안 듣고 뭐든지 그렇게 한다고 파라오처럼 얘기해요. 뭐든 반대하는 거죠(참여자 3).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와 함께 생활 했어요. 안식처, 위안처라기보다는 유일한 공급처가 되어 준거죠. 장손이라고 집안 사람들이 저를 많이 보호해 주었고, 가족들이 도와주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아팠었는데 병원비를 작은아버지, 친구들이 내주기도해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참여자 4).

4단계: 내적 변화모색 단계

내적 변화모색은 현실상황에 부합되는 심리·사회적 가치를 모색하며 가정의 정서적

소통과 생계유지를 구체적으로 도모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이다. 자신이 지켜온 심리사회적 가치를 조율하여 기본적인 생활의 재건을 위한 생산적 대처행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선다. 돈벌어오는 가장으로서가 아닌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부모가 되고자 자녀와 모든 상황을 의논하고 공유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정서적인 움직임은 수입이 적은 일이라도 기꺼이 하거나, 노후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행동으로 동기화 되었다. 아직은 일할 수 있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이 현실상황에 적합한 노년기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성공, 권력 등 외현적 가치를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도전이다. 비교되는 의식이 약화될수록, 가족 내 소통이 원활할수록 다음 단계인 현실 받아들이기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경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여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라도 해요(참여자 8).

욕심은 항상 위를 쳐다보게 하니까 만족하지 못 하는 점이 있잖아요. 이제는 체념을 하고 그 상황대로 그렇게 살아져요. 특별히 시간에 쫓기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집안일도 돕게 돼요. 남자들도 이제 여자일 남자일 구분 안하는 시대니까, 집안 일 하는 것이 큰 불편함은 없어요. 반찬은 해놓고 가니까 밥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죠(참여자 5).

사회적 지위가 있던 직장에서 나와 보

니 권력의 속성이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힘이 드니까 차츰 내려놓게 되었죠(참여자 2).

사고 싶은 구매력을 억제해요. 좋은 옷, 비싼 음식 먹는 것을 억제하게 되죠(참여자 9).

5단계: 현실 받아들이기 단계

현실 받아들이기는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로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현실적 대처이다. 이는 외부자원 의존과 내적변화모색 과정을 거치며 자기 성찰을 기반으로 나와 세상, 그리고 일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가능해진다. 돈 안 드는 자격증과정을 공부하고, 돈 안 드는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며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아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게 되고, 형편에 맞는 친구들과 교류하며 현실적 삶을 조율한다. 이러한 태도는 어찌할 수 없는 의식적인 지향일지라도 작은 삶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변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전략으로 구사되었다.

애들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여건을 마련하려고 해요. (중략) 노동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상을 잘 살도록 돕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직장생활 할 때 남들이 못하는 어려운 일을 내 주도로 다 해결 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나잖아요. 이 어려움도 그렇게 내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참여자 4).

먹고 사는 것의 문제만 신경 써요. 옛날은 싹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아요(참여자 7).

6단계: 제한된 자족 단계

제한된 자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머물며 활동과 역할에 관한 삶의 가치 태도 변화를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새로운 어려움이 생겨도 현실여건에 따라 살면 어떻게든 살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자기에게 알맞은 소소한 활동과 역할에 마음기울이며 현실 경험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통할 수 있고, 가족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소소한 기쁨을 창조하였다. 제한된 자족이지만 이는 어려운 가운데 더불어 사는 삶이고, 삶의 안전함을 유지하는 적응적 태도이다.

현재 생활이 몸은 고달파도 맘은 편해요. 마음 내려놓으니까 술도 안 먹어지고 욕심도 안 생기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몸뚱이가 편해져요. 남의 것 도둑질 않고 열심히 허드렛일이라도 하면 되는 거라고 마음을 비웠어요. 예전엔 그냥 바쁘게 살며 돈만 벌줄 알지 사는 재미를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고생이고 지금이 훨씬 편해요(참여자 7).

건강문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돈 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있죠. (중략) SNS로 가족들과 사소한 일들까지 다 공유해요. 서로 관계를 더 가까이 만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결국 가족이 행복이

죠. 그냥 좋아요. 주말되면 영상통화하고, 손자사진 올리면 칭찬해주고, 이런 자그마한 일들에서 행복감을 느끼죠(참여자 5).

그냥 살아요. 깊이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요. 지금이 가장 편해요. 자식들 다 잘 커가지고 결혼까지 시켰으니까요. 남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이제는 자유죠. 나만 책임지면 되잖아요(참여자 9).

핵심범주 :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아감’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추상화(abstraction)된 연구의 중심 주제이다. Strauss가 제시한 핵심범주의 6가지, 즉 자료에 자주 나타나고, 자료의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범주와 쉽게 연결되고, 일반적 이론으로 함축하고, 이론이 단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에 있어서 최대한의 변동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준거를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Strauss & Corbin, 1998).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역경대처 경험을 설명하는 핵심범주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아감’으로 도출되었다. 경제적 역경에 처한 은퇴자들은 은퇴 후 변화된 사회 환경을 접하며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이러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초기의 선택들은 과거의 사회적 지위와 일 역할 수준에 기초한 것이어서 현실반응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나’라는 존재가 심리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점점 더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일하기를 원해도 일자리

마련이 어렵고, 가족 내 관계양상이 변화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며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가장의 역할이 무력해지고, 사회적 존재감이 무너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가로막힘 속에서 도전과 실패를 회피하며 웅크리고 외부자원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차츰 ‘나’라는 존재의 기대 가치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초점을 두고 내적변화를 모색하였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맞추어 제한된 자족으로 살아가는 대처과정 속에서 주변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부각하고,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움직임을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의미부여할 때 현실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아감’은 역경의 정도와 적응태도, 삶을 지향하는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맥락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하는 역동에 의해 다양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의 심리사회적 존재가치를 내려놓고, 불필요한 것을 벗어던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때, 역경을 극복할 힘을 내면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가족의 지지가 부족할 때는 심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대안 마련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60대 은퇴남성의 경제적 역경대처 경험의 구조와 과정을 설명하는 실제 이론을 개발하였다. 60대 은퇴남성이 경제적 역경을 대처하는 경험과정은 ‘헤어 나오지 못함’ 속에서 웅크리다가 가치조율에 의한 내적

변화를 통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아감’이란 핵심범주로 요약된다. 이러한 핵심범주를 통해 은퇴자가 경제적 역경을 대처하는 데는 사람과 환경, 그리고 능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역경대처 경험의 본질은 은퇴자 자신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수용과 가족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현실상황에 알맞은 적응적 대처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자의 내적 가치 변화를 이끄는 힘이 중요한 타인의 지지임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는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적응수준, 또는 삶의 자각 수준을 넘어서는 진정한 삶의 의미 변화이다(이양자, 정남운, 2008; Tedeschi & Calhoun, 1995). 은퇴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경험하며 ‘고통’, ‘지옥’, ‘두려움’, ‘희망 없음’, ‘죽고 싶음’이라는 정서적 위기를 보고하였다. 그동안 감당해왔던 경제적 역할이 심리사회적인 권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경제력 상실로 인한 자아정체성이 손상을 입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는 강지숙(2008)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는 변화된 사회구조를 수용하고, 현실사회에 적용 가능한 자기개발과 경력개발을 개인특성에 알맞게 실행할 때 개인을 보다 적응적으로 이끌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실존함에 있어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 뒤에 비로소 자신을 정의한다’고 했다(Brian Christian, 2012). 은퇴를 대응하는 전략에 따라 이후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은퇴 후 심리적인 안녕감이 오히려 증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Kim & Moan, 2002).

본 연구에서 나타난 60대 은퇴남성의 경제

적 역경 대처 과정은 ‘가로막힘 단계’, ‘웅크림 단계’, ‘외부자원 의존 단계’, ‘내적변화 모색 단계’, ‘현실 받아들이기 단계’, 그리고 ‘제한된 자족 단계’의 6단계였다. 역경대처 과정 단계별로 상담 개입에 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막힘의 단계’는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 함’, ‘단번에 경제적 회복을 이루고자 함’, ‘가장의 역할이 무력해지며 존재감이 무너짐’, ‘일할 수 없는 현실이 막막함’, ‘아내와 갈등의 골이 생김’의 범주가 해당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위기의식에 놓일 때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직업적 역할에 치중하며 조급하게 투자하는 대처전략을 구사하였다. 객관적인 경제상태가 열악하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재취업, 창업 등 경제적 대처 행동을 많이 수행(박혜성, 2007)하게 되는데, 이때 은퇴준비가 구체적이지 않을 때는 사소한 정보에 쉽게 자극되고 직업역할 정체성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적 완충 역할로서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주민센터, 구청 등은 실질적인 정보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산하고, 현실성찰에 기여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은퇴자가 은퇴에 따른 충격과 심리사회적 위기감을 극복하고 사회적 연령차별에 관한 대처자원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웅크림 단계’는 ‘대인관계 회피하기’,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을 걱정하기’ 범주가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는 모임과 돈 지출의 욕구를 줄여도 경제적 역경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회적 단절과 죽음으로 현실을 회피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이와 같은 현상은 은퇴 후 노인들

이 투자손실과 예상치 못한 지출 등으로 빈곤해지면 돈이 드는 동창회, 지역회의 등에 나가지 않고 은퇴생활을 유유자적하게 보내고 싶었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일본 은퇴 노인들(일본주간현대, 2013)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은퇴 이후 가장의 역할이 무너지는 상실감은 삶과 죽음의 본질적인 갈등으로 극대화 되고,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은퇴 이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신복기, 이성진, 201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과 도무지 무얼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 고립감으로부터 비롯된 정서적 고통은 노인 우울증상과 삶의 만족도를 연결하는 교량 증상(정동희, 심은정, 2019)이기도 하다. 이러한 은퇴자의 심리적 위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족의 격려와 동질집단과의 정서 및 정보 교류가 활발해질 때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현실자아를 점검하고 중요한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개입으로 조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부자원 의존’ 단계는 ‘아내에게 의존해서 생활하기’, ‘자신을 살리고자 도움을 부여받기’ 범주가 해당된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체면 손상과 죄책감이 일지만, 일하지 않던 아내가 일을 나가고, 자녀들이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 및 결혼비용을 감당하는 가족 내 지지체계는 신뢰와 믿음, 심리적 안정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직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의 강점과 가능성을 수용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강한 신뢰와 결속감을 가질수록 문제 중심적이고 사회적 지지추구 형태의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김현정, 함경애, 이동훈, 2014). 위축감에

웅크려 있던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족의 지지는 부분적일지라도 과도한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은퇴자 개체로서의 존재에 집중하도록 촉진되는 요소이다. 의존의 순기능은 사회적 지지 욕구가 충족된 후 자기지지 자원으로 전환될 때이므로, 자신의 내적자원을 충분히 탐색하고 개발하여 자기정체감을 새롭게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내적변화모색 단계는 ‘가치 조율하기’, ‘기본적인 가정생활부터 재건해 나가기’, ‘생계유지하며 살아갈 방안을 모색하기’ 범주가 해당된다. 심리내적변화가 일면서 명예와 부를 쫓는 가치를 책임과 신뢰라는 가치로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가치조율은 역경 속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여 삶의 유지를 견고히 하는 내적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를 매개하는 힘은 자기개방이며, 현실수용이 가능해질 때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생애진로발달에 비추어 볼 때 성인후기의 성장과 발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성장과 유연성이 있음(Labouvie-Vief, G., DeVoe, M., & Bulka, D., 1989)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적 변화는 은퇴자 자신의 역할과 신념, 경력과 존재방식을 새롭게 평가하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지될 수 있다.

다섯째, 현실 받아들이기 단계는 ‘변화된 처지를 직시하고 현실에 맞춰서 생활하기’,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기 돌보기’ 범주이다. 외적 내적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를 거쳐 오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욕구를 조율하고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는 이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대처이다. 행동 및 동기의 기대가치모델(expectancy-value models of motivation and behavior)

을 살펴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다룰 수 있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로 노력을 지속한다(Carver et al., 1993). 본 연구결과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문제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이수연, 이동훈, 이덕희, 이민영, 201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질병이나 불우한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순응해가며, 충격적인 생활사를 경험하면 얼마 동안은 안녕감 수준이 낮아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기본적인 안녕감 수준(Base line)’으로 회복(Suh, E., Diener, E., & Fujita, F., 1995)되는 경향이 있다. 삶의 질적 변화를 수용하고 현실을 적응하는 인내심과 여러 절망적 상황을 긍정적 사고로 순환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덜 자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안녕감이 유지될 수 있다. 현실을 의미 있는 삶으로 구성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제한된 자족 단계는 ‘계속되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감’, ‘적응적 삶의 태도를 구축함’, ‘가벼움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감’의 범주가 이에 해당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역경상황에 대한 자연적 내성과 제한된 현실 기능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현실여건에 맞는 자족을 구축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중심현상이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취하게 됨으로써 계속되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하거나 적응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물리적·정서적 가족 붕괴, 즉 은퇴 전에 가족에게서 깊고도 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지적 관계가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어(Nahum-Shani, I and Bamberger, P.A., 2009) 일의 동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부적응적 결과로 이어졌다. 재정적 요소와 배우자의 지지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은퇴적응과정에 중요하다는 네델란드의 은퇴에 대한 부부 적응 다중행동 패널 연구결과(Van Solinge, H. and Henkens, K., 2005)와는 가족 지지의 중요성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국의 ‘우리 가족’ 문화 정체성이 서구의 ‘나의 가족’ 문화정체성에 비해 은퇴자 개인의 삶을 덜 보존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연금수령은 빚에 놓이고 연금 수령액이 적을지라도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창출하거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버팀목이 되어 주는 적응적 기능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과 결혼은 자녀부양책임에서 벗어나 사회 참여적 지위와 보상이 제한되어도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나은 삶으로 지지되었다(Wray, 2003). 위와 같은 결과는 은퇴 후 경제적 역경 상황에서도 앞으로 주어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중요한 타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더 가치를 두고(Carstensen, Isaacowitz, & Charles, 1999) 후손을 돌보며 기쁨을 갖거나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관계로 발전하면 은퇴생활이 건설적이고 낙관적일 수 있음(Ellie Stirling, 2010)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60대 은퇴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이는 은퇴 후 제2의 직업 준비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100세 시대를 살아갈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구조적으로는 은퇴자들이 적절히 일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급선무이다. 또한 은퇴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포함

하는 전환점이어서 은퇴 상담이 개인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은퇴에 대한 현상과 사회 불균형적인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하여 은퇴정책의 변화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60대 은퇴 남성의 경제적 역경 경험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탐색은 은퇴준비상담에서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예측하게 하고 좀 더 나은 대처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은퇴 후 경제적 역경대처 경험의 구조를 밝히고 대처과정의 모형을 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은퇴자 개인의 주관적인 역경대처 과정을 시간의 흐름으로 체계화하여 연구를 시도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이 은퇴주제를 확장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은퇴남성의 경제적 역경대처과정에 대한 특성을 밝힘으로써 심리·사회적 이해의 기초를 세우고, 또한 이는 개인 및 가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은퇴 후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관한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역경상황이라는 공간속에서 은퇴 적용에 필요한 대처자원과 대처기술 및 활용을 위한 상담개입에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전일제 일에 근무하지 않으며 주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였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의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은퇴경과기간과 소득기준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통해 질적 연구를 좀 더 다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직종의 특성을 구별하지 않고 남성 은퇴자로 한계를 지었으며, 또한 직종 구분과 공적연금을 세분화하지 않고 경제적 역경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연구범위를 규정 한 것은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은퇴자로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직종을 구별하고, 연금수혜자와 비연금수혜자를 따로 분석함으로써 실체 이론의 일반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경제적 지표 등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은퇴 후 역경대처 과정연구에만 의존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차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감안하여 여성의 은퇴 후 역경대처경험연구가 진행된다면 여성 은퇴자의 심리사회적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숙 (2008). 노인의 은퇴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8(3), 477-496.
- 김경희, 정혜정 (2017). 베이비부머 은퇴 남성의 내러티브 정체성 탐구. *가족과 가족치료*, 25(4), 839-862.
- 김선영, 윤혜영 (2012). 은퇴남성의 은퇴 스트레스, 성격 강점, 결혼불만족이 은퇴 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4), 553-576.
- 김은영 (2014). 빈곤노인의 은퇴 후 노동시장 재취업.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9-40.

- 김지경, 송현주 (2010). 중고령 은퇴자들의 은퇴 후 경과기간별 은퇴생활적응의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8(6).
- 김진욱 (2011).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년학*, 31(1), 111-127.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김향은, 정옥분 (1992). 정년퇴직을 앞둔 중년 남성의 심리적 불안-퇴직 예정자의 상태 특성불안과 현행 정년제도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2), 159-169.
- 김현정, 함경애, 이동훈 (2014). 실직자의 가족 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87-804.
- 남순현 (2017). 은퇴 후 삶의 적응에 대한 Glaser의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1), 5-29.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혜성 (2007).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방희명 (2009).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211-234.
- 석상훈, 김현수 (2012).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생애 이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재정학 연구*, 5(3), 99-124.
- 신복기 · 이성진 (2016). 은퇴이후 주관적 경제적 빈곤 발생기간의 영향 요인. *노인복지 연구*, 71(4) 61-89.
- 신복기 · 이성진 (2017). 은퇴이후 노인 경제문제의 발생위험 및 영향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년도 국제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2), 66-87.
- 이민규, 김완석 (1999). 실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94-109.
- 이수연, 이동훈, 이덕희, 이민영 (2019).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성인의 낙관성, 대처방식, 외상 후 성장, PTSD 증상, 음주 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571-600.
- 이양자, 정남운 (2008).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23.
- 일본주간현대 (2013). '노인빈곤사례'. <http://gendai.ismedia.jp/articles/-/37196>.
- 정동희, 심은정 (2019). 노인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의 네트워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549-570.
- 주재영 (2010). 베이비붐 세대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신덕, 김종숙 (1983). 노인과 사회. *고시연구사*, 156.
- 최신애, 하규수 (2012).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중증만성질환자 돌봄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6), 265-278.
- 최혜지, 이영분 (2005). 사회심리적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415-435.
-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5). *사회조사*.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서울: 통계청.
- 통계청 A (2019). 고령자 통계. 서울: 통계청.
- 통계청 B (2019). 고령층부가조사. 서울: 통계청.
- 한경혜, 최현자, 은기수, 이정화, 주소현, 김주현 (2011).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 서울대학교노화고령사회연구소.
- 홍성원, 정민희, 유서구 (2016). 은퇴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1), 139-162.
- 홍성희, 곽인숙 (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Atchely, R. C. (1988). Social forces and aging(5th ed.). Belmont, CA: Wadsworth.
- Brian Christian (2012). 가장 인간적인 인간. 서울: 책 읽는 수요일. (원전은 2011년 출판).
- Chalmers, L., & Milan, A. (2005). Marital satisfaction during the retirement years. *Canadian Social Trends*, 76(1), 14-17.
- Carstensen, L. L., Isaacowitz, D. M., & Charles, S. T.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3), 165-181.
- Carver, C. S., Pozo, C., Harris, S. D., Noriega, V., Scheier, M. F., Robinson, D. S., & Clark, K.C. (1993). How coping mediates the effect of optimism on distress: a study of women with early stage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375.
- Christ, S. L., Lee, D., Fleming, L. E., LeBlanc, W. G., Arheart, K. L., Chung-Bridges, K., Caban, A. J., & McCollister, K. E., (2007). Employment and occupation effects on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mericans: Does working past age 65 protect against depression.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B(6): 399-403.
- Fassinger, R. E. (2005). Paradigms, Praxis, Problems, and Promise: Grounded theory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56-166.
- Horn, J. C., & Meer, J. (1987). The vintage years. *Psychology Today*, 21(1), 88-90.
- Kim, J. E., & Moen, P. (2002). Retirement transitions,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life-course, ecological model, *The Journals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7B(3), 212-222.
- Labouvie-Vief, G., DeVoe, M., & Bulka, D. (1989). Speaking about feelings: Conceptions of emotion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4(1), 425-437.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Mclaughlin, D., Vagenas, D., Pachana, N. A., Begum, N., & Dobson, A. (2010).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network size and satisfaction in adults in their 70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5), 671-679.
- Nahum-Shani, I., & Bamberger, P. A.. (2009). Work hours, retirement and supportive relation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ur*, 30, 1-25.
- Neda, D., Johan, D. D., & Caroline, D. (2015). Poor because of low pensions or expensive housing? The combined impact of pension and

- housing systems on poverty among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Housing Policy*, 15(3), 260-284.
- Price, D. (2006). The Poverty of Older People in the UK.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 20(3), 251-266.
- Reitzes, D. C. & Mutran, E. J. (2004). The transition into retirement: Stages and factors that influence retirement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9, 63-84.
- Sarmistha P., & Robert P. (2010). Understanding poverty among the elderly in India: Implications for social pension policy.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7(7), 1017-1037.
- Schreiber, R. S., & Stern, P. N. (2001).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신경림, 김미영 공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2001에 출판).
- Simmons, B. A. & M. J. Betschild. (2001). "Women's retirement, work and life paths: Changes, disruptions and discontinuities". *Journal of Women & aging* 13(4), 53-70.
- Stirling, E. (2010). Valuing Older People; *Positive Psychological Practice*. Chichester: Wiley-Blackwell.
- Strauss, A., Corbin, J. (1998). 질적 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2001).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서울: 현문사.
- Suh, E., Diener, E., & Fujita, F. (1995).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recent event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ending revisions.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 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93-102.
- Van Solinge, H. & Henkens, K. (2005). Couples' adjustment to retirement: A multi-actor pane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0B, S1-S20.
- Varcoe (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amp; Home Economics*, 14(1).
- Voydanoff Brenda W. Donnelly (1989).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2.
- Wray. S. (2003). Women growing older: Agency, Ethnicity and Culture. *Sociology*: 37, 511-527.

원 고 접 수 일 : 2019. 08. 06
수정원고접수일 : 2019. 10. 18
계 재 결 정 일 : 2019. 12. 16

The Adversity Coping Experiences of Male Retirees in their 60s: A Focus on Economic Difficulties

Ui-Ju Yang

Jeonju University / Lecturer

Jung Ha

Jeonju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substantial theory describing the process of adversity coping in male retirees. For this purpose, nine retired men in their 60s who had experienced economic problems after retirement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Us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 116 concepts, 51 subcategories, and 23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open coding. The paradigm model of the central phenomenon was revealed as 'unable to break out.' The core category was 'accept and live with realistic yet unavoidable conditions.' Coping procedures for economic difficulty in the post-retirement chronologically appeared to expand in six stages: 'obstruction,' 'crouching,' 'dependency on external resources,' 'seeking internal change,' 'adapting to reality,' and 'limited self-sufficiency.'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Key words : retire, adversity coping, economic difficulties,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